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될까?

최효찬
칼럼니스트



초기 불교의 모습을 담은 ‘아함경’. 고타마 붓다가 35살에 깨달음을 얻은 후 80세에 입적하기까지 붓다와 그 제자들이 행한 초기불교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아함경은 붓다의 가르침이 사라질 것을 걱정한 500명의 제자들에 의해 100년 동안에 걸쳐 붓다의 가르침을 결집해 만든 경전이다. 아함경은 한 사람이 붓다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기억해 낸 것을 함께 외워서 공인하는 형식으로 결집되었는데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 등으로 구성된다. 아함(阿含)은 ‘아가마’의 한역인데 ‘전하여 온 것’이라는 뜻이다.



플라톤(plato)

2,500년 전 인도에서 붓다의 가르침이 제자들에 의해 ‘아함경’으로 만들어질 즈음 중국에서는 공자(B. C. 551~479)의 제자들이 모여 스승의 어록을 집대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논어는 바로 공자의 어록(語)을 모아 편집(論)한 것이라는 뜻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자하, 자유, 증자, 유자 등 제자 64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공자의 제자들은 ‘논어’에서 공자의 이상정치론을 ‘인정(仁政)’으로 요약해 스승의 ‘업적’으로 돌렸다. 중국의 고전을 상징하는 ‘논어’나 붓다의 가르침이 담긴 ‘아함경’의 저자는 실은 공자나 붓다가 아닌 것이다. 제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공자는 유가(유교)의 창시자가 되었고 붓다는 불교의 진리를 만 세상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서양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알프레드 노오스 화이트헤드가 한 말이다. “플라톤 이전의 철학은 플라톤으로 흘러들어와 플라톤으로부터 나왔다”고도 한다. 그만큼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철학이고 철학의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플라톤(B. C. 427~347)이 쓴 30여권의 책에는 대부분 스승 소크라테스가 등장한다. 말하자면 플라톤 철학은 바로 9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철학이고 그 위에 자신의 철학을 정교하게 다듬어 담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스승의 콘텐츠를 ‘슬쩍’ 했고 이게 청출어람의 발판이 된 셈이다.

사제관계에서 동양이 ‘스승’을 앞세우는 전통이라면, 서양은 ‘제자’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는 ‘전통’(?)이 플라톤부터 형성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서양의 이런 학문적 전통이 어찌면 스승을 뛰어넘고 혁혁한 업적을 이루는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양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찌면 스승의 학문을 뛰어넘어 위대한 연구 성과로 이어지게 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동서양 사제 간의 ‘문화의 차이’에 대해 새삼 생각해본다. 물론 이 역시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을 터이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까지 선비나 학자, 정치가 등은 생전에는 ‘문집’과 같은 책을 내지 않았다. 책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제자와 친구, 자녀들이 모여 죽은 이가 생전에 쓴 글들을 모아서 발간했는데 그게 바로 ‘문집’이다.

그 문집의 기원은 바로 공자와 그 제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자녀들에게 글공부를 열심히 하게 했다. 자녀가 무지하면 아버지의 문집조차 남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은 반역 죄인이 된 후에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열심히 글 읽기에 매진해 훗날 자신의 저술을 잘 세상에 드러내줄 것을 편지로 당부하기도 했다. 자식이 문맹이면 훗날 자신은 의금부 소장에 기록된 죄인의 행적만 세상에 회자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산의 50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은 현손(5세손)인 정규영이 1921년에 정리한 ‘사암선생연보’로 빛을 보게 된다. 그제야 다산의 진면목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제자와 자녀, 친구들이 만들어준 문집의 문화는 엄격한 ‘저술의 문화’로 이어져 우리의 정신과 학문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문집의 전통은 또 한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집의 전통은 자녀교육에 열성적인 문화로 이어졌다. 문집을 내지 못하면 사후에 제대로 공부한 선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해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있다. 언젠가 이 모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그때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산 정약용